

세종기지 탐사대원에 뽑힌 흑산도 기상대 김문용씨

꿈에 그리던 남극행 가슴 벅차요

광주지방기상청 흑산도 기상대 김문용(37) 기상예보사는 요즘 집을 행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한 달 남짓 후인 내년 1월2일, 남극 세종과학기지로 떠나기 때문이다.

그가 가져갈 짐은 옷가지 등 개인사물 외에 환경오염 관련 논문을 쓰기 위한 각종 자료·남극의 동물과 자연을 담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저장해 둘 500GB 용량의 DVD와 영어교재 등이다. 남극생활을 꼼꼼히 기록할 노트 수십 권도 챙겼다. 갖고 갈 짐 무게만도 80kg에 이른다.

세종과학기지 제21차 월동연구대원 17명 중 김씨의 임무는 기상예보·연구 및 관측장비를 관리하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예보사를 제치고 고품질 출신인 김씨가 선발된 것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친화력을 높이

고졸 출신...꿈임 없는 도전정신·친화력 인정 받아 선발

내년 1월 출발...“환경오염 방지 연구 한국 위상 높일 것”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막노동·주유소·독서실 총무 등으로 일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영역을 넓혀왔다.

김씨는 25살 때부터 기상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1년 만에 합격했다. 기상청 문물을 두드린 것은 고향인 흑산면 흥도에서 어릴 때부터 매일 겪어온 게 거친 풍랑이며 바람으로, 날씨에 관한 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흑산도에 근무하면서는 ‘흙이 콧잔더이 문자러질 정도의 사릿물’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맑음’ ‘갈매기 낮게 날면 어장 겹어라’ 등 어촌 속담과 날씨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의 열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향과는 전혀 생소한, 남극에 가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이런 속내를 내비치지 부모와 아내 등 가족의 반대가 심했다.

광주지방기상청 직원 중 먼저 선발돼 타지역 5곳의 후보들과 경쟁하는 것은 더욱 버거웠다.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김씨에게는 불리한 수밖에 없었다.



내년 1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되는 흑산도 기상청 김문용 기상예보사가 현지에서 사용할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산도=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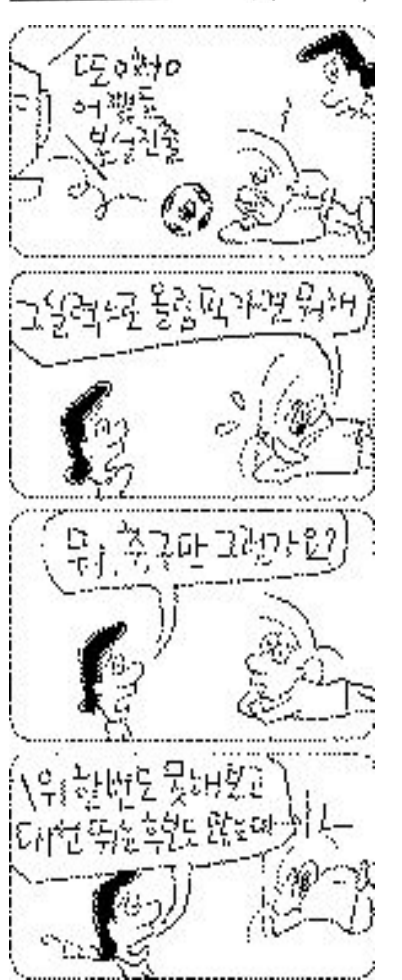
그는 자기소개서에 7년간 흑산도에서 근무하며 체득한 동료애와 기상청 입사 전 7년간의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얻은 친화성을 부각했다. 김씨의 성실성과 친화력을 인정받은 김씨는 선정됐다.

내년 남극 세종기지에 들어가면 김씨는 하루 4차례 6시간 간격으로 기상측정을 해 남극 칠레공군기지로 기상정보를 전해준다. 전달된 기상정보는 세계기상기구(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로 전달돼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세종기지의 다른 대원들은 매주 일요일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김씨에게는 휴일은 없다. 하루 네 차례 기상관측 때문에 잠도 눈을 뜰 수 없어서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세워서 틈틈이 이뤄나갈 계획이다. 남극의 기상과 갈수록 오염돼 가는 환경오염 관련 논문, 그리고 펠린 등의 동물과 풍경을 사진으로 담은 예정이다. “해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남극의 환경을 직접보고 연구해 기상오염을 막는 논문을 써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오겠습니 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366) 김장동



휴대전화, 불안감을 유발 시키는 존재
수능시험, 꿈수 읽는 능력을 재는 시험

인터넷 ‘불안 사전’ 인기

〈황우석 용어 사전〉과 〈아이두 사전〉에 이어 최근 인터넷에 〈불안 사전〉(不安 辭典)이 등장했다. 책 읽는 네티즌들이 꾸미는 ‘시민 독서 프로젝트’(www.jsitnet.com)가 ‘비정규직’과 ‘불안’을 주제로 내걸고 낱말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회원들은 “기존 국어사전은 급변하는 한국상황을 대변하기에 너무 낡았다”며 “시대에 맞는 사물의 의미가 다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년에 한 번 펼쳐지는 장, 출제자의 내공과 가장 가까운 내공을 가진 응시자는 서울·연세·고려 등 세칭 일류 무림 파에 스퀴트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작 해당 파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이라고 규정했다.

‘학원’은 사전상 ‘학교 설치 기준의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립 교육 기관’이라고 풀이되지만, ‘인생이 저당잡힌 곳’이라는 엉뚱한 뜻을 부여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칼퇴근’은 ‘회사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꿈의 단어’이며 ‘88만원’은 ‘한 달 월급, 프라다 휴대전화 1대 가격’으로 인식된다. ‘시민독서프로젝트’ 홈페이지에는 현재 100여 개의 새 해석이 올라왔으며, 네티즌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경찰 전산망 5시간 마비

서버 전기공급 고장...수사업무 차질 민원인 불편

경찰 전산망이 전기공급 장치 이상으로 마비되면서 한동안 수사·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경찰청 서버 이상이 발생하면서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 전산망이 다운됐다. 이로 인해 기본 전산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사건 입력 ▲피의자인적사항 파악 ▲범죄 통계 ▲사건

발생 확인 등 대부분의 수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긴급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과조회 등이 진행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수사 형사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또 ▲교통사고 확인원 ▲분실신고 ▲사건 접수 등 일부 민원 업무도 중단돼 경찰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서투 접수만 한 뒤 되돌아가기도 했다. 시민 서부광(33·광주시 북구 입동)씨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확인원

올 겨울 폭설·한파 잦다

올해 겨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이상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태평양의 해수면에서 발달한 ‘라니냐’의 영향으로 날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폭설이나 한파 등 이상 기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겨울철 동아시아지역은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하지만, 올 겨울은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평균 기온은 평년(영

하 6~영상 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55~214mm)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로는 12월의 경우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15~55mm)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온은 평년(영하 5~영상 9도)과 비슷하겠지만,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겨울 강수량

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12·1월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여 폭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상 기상현상이 잦을 것에 대비해 담양·나주·화순 등 대설 다발지역 16곳에 자동 적설 관측망을 새로 설치하고, 1시간마다 실시하던 관측도 10분 간격으로 늘리는 등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찰청은 23일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최병민 보청 수사국장(54·사진·차안감)을 발령했다. 수사팀인 신인 최 정장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신임이 두터운 평가를 받고 있다. 화순 출신인 최 정장은 ▲승원고 ▲간부후보 28기 ▲전남청 방법과장(1996년)▲강진경찰서장(97년)▲경찰청 행사과장(2002년) ▲전남청 차장(2005년)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은 또 후임 보청 수사국장에 보청 정보통신관리과인 박영현 경무관을 차안감으로 승진 발령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November 24th. Includes a table for hourly weather (비개인 오후)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patterns. Also includes a table for the week's weather (11월 24일) and a table for the next few days (날씨).

불법오락실 비호 경찰관 구속

오락실 업주를 비호한 혐의로 경찰관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형사2부는 23일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업을 묵인·비호한(본보 11월23일자 7면) 광주 서부경찰서 N지구대 김모(51) 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5월

계부투 처남 박모(46)씨 등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서구 금호동 H오락실의 불법영업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경사와 함께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K지구대 이모(35) 경장과 또 다른 김모(38·생활안전과) 경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양항 예선 노조원 선박 접안 막아

파업을 벌이고 있는 광양·여수항 예선 노조원 일부가 광양항에 입항한 선박의 접안을 방해해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광양·여수항 예선 노조원 수십명이 예선을 동원, 광양항에 입항한 선박들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예선을 이용해 접안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9천 t급 컨테이너 화물선 2척이 오후 6

시 현재 접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선 노조원들은 광양항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허지승과 KIT 노조원들과 공동 파업을 벌이면서 KIT측이 운영하는 터미널을 이용하려는 선박들의 접안을 모두 막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KIT 터미널을 이용할 예정인 8천t급 컨테이너 화물선 1척의 접안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등 상당한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대검차장 권재진

법무부 고검장급 4명 인사

법무부는 2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명동성(53) 광주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권재진(53) 대구고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서울고검장에는 박영수(55) 대전고검장을, 법무연수원장에는 안영욱(52) 서울중앙지검장을 발령하는 등 고검장급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성범 검찰총장이 퇴

임하고 정동기 대검 차장과 홍경식 서울고검장이 검찰 후배인 임재진 신임 총장의 취임에 앞서 용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영욱 법무연수원장은 임재진 총장과 사법시험(19회)·연수원(9기) 동기이고 명 검사장을 나머지 3명은 모두 사시 20회·연수원 10기로 임 총장보다 후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되는 지방고검장 보직은 내년 상반기 인사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3일 오후 광주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동성 고검장 취임식에서 안창호 고검 차장검사가 명 고검장(오른쪽)에게 재직패를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늘 엄정하되 인간미 갖춰라”

명동성 광주고검장 이임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BBK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될 명동성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광주고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은 늘 엄정함을 유지하되, 너무 독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명 고검장은 “전투력·수사력·엄정함은 수사 검사의 기본이지만, 사건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함몰되고

물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중요한 사건일수록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생각으로 조금 떨어져서 봐야 한다”며 ‘인간미 넘치는 검사상’을 강조했다. 강진 출신인 명 고검장은 광주고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시 20회(연수원 10기)로 검찰에 입문해 ▲인천지검 검사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인천지검 1차장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

여수 화학공장 폭발 사고
청소 작업 인부 2명 희생

23일 오후 2시36분께 여수시 화학동 벤젠 제조 P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벤젠 공급장치를 청소하던 정모(39·여수시 신기동)·조모(53·여수시 안산동)씨 등 작업 인부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씨 등이 벤젠 공급 장치를 청소하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를 하던 중 마찰에 의해 발생한 정전기 가 휘발성 물질을 폭발시켰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80대 노인 목욕탕서 숨져

지난 22일 오후 2시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 B목욕탕에서 심모(81·광주시 북구 용봉동)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종업원 정모(42)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다른 손님들이 불러 온탕에 가봤더니 심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고온탕에서 몸을 빼던 중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윤라메시지 고교생 “죄 될 줄 몰라”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여중생에게 윤라메시지를 보낸 광주 J고 3년 유모(18)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입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두 달 전 구입한 휴대전화 목록에 있던 유모(15)양의 전화번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6차례에 걸쳐 보냈다는 것. ○유군은 친구 전화번호를 저장하던 중 번호목록에서 유양의 전화번호를 발견했는데, 경찰에서 “장난삼아 했는데, 죄 될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 ○담당 경찰은 “애초 유양 전화번호가 보호 설정이 돼 전화번호 목록 일괄 삭제 당시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를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